



## 가금 티푸스

가금 티푸스는 세균성 질병이다. 그러나 살모넬라는 항생제에 대해 막강한 회피 체계를 갖춘 세균이다. 살모넬라는 세포 속으로 침입을 하여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터득한 세균이다. 살모넬라의 종류는 학자에 따라, 분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2,500종 이상이 존재하는 것이 정설이다. 살모넬라는 닭과 사람에게 모두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양계업에서의 전파는 감염된 종계로부터 부화된 병아리에게 오는 수직전파와 감염된 닭이 옆에 있는 닭에게 주는 수평전파로 나뉜다. 수평전파는 직접적인 접촉, 오염된 사료, 음수, 분변

표 1. 살모넬라 종류 비교

구분	추백리	가금티푸스	가금파라티푸스
원인균	S. Pullorum	S. Gallinarum	S. Typhimurium S. Enteritis 등
주요숙주	닭	닭, 칠면조	가금류, 설치류, 사람
균의 운동성	없음	없음	있음(편모)
발병일령	초생추(주로)	모든일령	초생추, 성계(가끔)
전파경로	주로 난계대	난계대, 동거 경구감염	외계감염
인수공통전염병	없음	없음	사람; 식중독
빈혈증상	자주 있음	심함(용혈성 빈혈)	거의 없음



한 장 혁

(주)고려비엔피 전무/수의사

등으로 전파가 되며 요즈음 와구모에 전파 양상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 1. 추백리(*Salmonella Pullorum*)

병아리에서 흰색 설사를 동반하여 높은 폐사율을 갖는 소화기 질병이다. 현재 종계에 대한 검사로 추백리 발생이 거의 없으나, 가끔 종계로 받은 난계대 전파가 불현성감염(증상 없이 감염된 것)으로 이어지다 산란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산란계가 발견되기도 한다.

## 2. 가금 티푸스(*Salmonella Galinarum*)

티푸스의 주요 증상은 아래 사진에서처럼 간의 종대 및 백색 괴사 반점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살모넬라균이 세포 내로 침입하여 간세포를 파괴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며, 간 기능의 저하를 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로 벼슬이 창백하고(빈혈) 웅크린 상태로 있다. 황색 설사를 동반하며 산란율 저하와 폐사를 일



으킨다. 간에 국한되어 부검소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장, 신장의 종대를 일으키며 이는 심장에 압박을 주어 심낭에 물이 차는 심장 수종 및 흰색 결절이 보이기도 한다.

## 3. 예방법 및 계군 관리

예방법은 난계대 전염이 시발점이므로 선별된 종계장에서 병아리를 구입하며, 계사 및 농장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요인을 막지 않고 농장의 위생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백신의 사용도 권장할 수 있다. 만일 발병을 하였을 경우 항생제에 대해 반응을 하나, 산란계에 항생제 사용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살모넬라균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치료도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와구모가 있는 농장에서는 와구모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살모넬라를 근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와구모가 흡혈을 통해 번식하므로 전파의 주요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살모넬라도 없고 와구모도 없는 양계장을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만든 모든 생산물은 식품이며 식자재이기에 국민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양계**